

어와나를 마치며



나는 4학년 말에 어와나를 처음 알게 되었고, 5학년 때 동생과 함께 어와나 T&T에 입단했다. 처음 입단했을 때 게임시간은 재미있었지만 말씀을 외우는 건 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주위의 선생님들과, 친구들, 언니들, 동생들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열심히 했다. 그래서 5학년 1년 동안 어와나 핸드북 1, 2권을 모두 끝낼 수 있었다. 어와나는 말씀암송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간증도 해주시고, 심부름을 하고 받은 용돈으로 선교헌금도 한다.

1년 동안 어와나를 해보니까 정말 재밌었고 말씀도 더 잘 암송하게 되었다. 2권으로 성경퀴즈대회를 나갔다가 금메달을 따서 자신감을 얻고 6학년 때 재 입단을 하였다. 6학년 때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더 많이 알게 되어 더욱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말씀 암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6학년 1년 동안 남은 핸드북 3, 4 권을 모두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열심히 암송해서 2년 동안 4년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었고, 어와나 핸드북 4권을 다 끝낼 때는 정말 뿌듯했다. 암송을 잘하니 학교 공부도 더 잘 할 수 있었다.

어와나 T&T의 마지막 성경퀴즈 대회가 지난 2월 12일에 장석교회에서 열렸다. 많은 교회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메달을 받았다. 4권 6학년이 열명도 넘었는데, 금메달을 딴 사람은 우리교회 이재유와 나 둘뿐이었다. 열심히 외운 보람이 있었다. 금메달을 땀지만 아쉽게도 최고 득점상인 트로피는 놓치고 말았다. 이재유는 성경퀴즈대회에서 3년째 트로피를 타다니 정말 대단하다. 비록 트로피를 타지는 못했지만 어와나 핸드북 4권을 끝냄과 대회를 나갈 때 마다 금메달을 받은 것으로 만족한다. 또 어와나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 몰랐던 것을 잘 알게 되어서 행복하다.

나는 어와나 T&T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그래도 3월부터 또 어와나 Trek에 입단해서 더욱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그동안 어와나 T&T에서 열심히 가르쳐준 선생님들과 옆에서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가끔 학교친구들이 어와나가 뭐냐고 물어본다. 어와나는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된 자) 라는 뜻의 약자이고, T&T는 Truth & Training (진실과 훈련) 이라는 뜻이다. 매주 토요일에 게임, 말씀암송, 교제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을 받은 클럽이다. 맛있는 간식도 매주 먹을 수 있고 선물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많은 동생들이 어와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다.

2년 동안 매주 토요일 지각 결석 한번 없이 해서 어와나 상도 받고 많은 말씀을 암송하게 해준 어와나를 잊지 못할 것이다. T&T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 감사해요 ♡

(안지수 학생)

새가족 간증

새가족 양육모임 중,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 오셨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양육리더집사님이 간증의 글로 정리해 보라고 했을 때, “그래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인데..”라고 생각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엔 걱정과 두려움, 아이의 성장과정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여러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간증을 꼭 해야 하나라는 갈등 속에 기도드리던 중 주일 예배시간이었습니다. 예배 끝 무렵에 “이 믿음 더욱 굳세라~주가 지켜주신다~” 구절을 부르는데 외락 눈물이 솟으며 벅찬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온전하게 믿질 못하느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고 자문하였습니다. 13차례 항암치료! 2번의 종양제거 수술! 20번의 방사선 치료! 골수이식수술! 이 이야기는 병마를 이겨낸 어떤 어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고, 수영도 잘 하는 6살짜리 제 둘째딸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큰딸이 5살 무렵 동맥수술을 받았을 때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때만 해도 절실함은 별로 없었고, 다행히 큰딸은 간단한 시술로 회복되어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 18개월 된 작은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밤마다 울며 아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으나 어디서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살쯤 될 무렵 서울대 병원에서 소아암이란 진단을 받았고, 저는 엄마로서 그저 옆에 있어줄 뿐 아무것도 해줄 수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의 기도는 원망과 분노와 미움의 기도였습니다. “왜 내 딸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가 있다면 엄마인 나에게 주시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힘든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며 고통의 몸부림으로 기도했지만, 점점 감사와 희망과 기쁨의 기도로 변해갔습니다.

제 아이는 정말 치료가 힘든 아이였습니다. 특히 수면이 안 되는 아이로 유명해서 의사 선생님도 병원생활 20년 만에 처음이라 할 정도로 강한 약과 수면주사를 수십 번 써도 수면이 안 되어 진단 받기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정말 대견스럽게도 치료를 잘 견뎌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지? 매 순간순간 기도드리며 소리 내어 울며 간구했던 그 나날들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생활이 가능 했을지? 제 딸이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놀며 기적과 같은 일이 가능 했을지? 다니던 교회에서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와 사랑이 저를 더욱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2년 전에 잠실로 이사를 오게 되어 교회 가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힘들어서 교회 가는 길이 기쁘고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의무감으로 여겨질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은혜 받은 교회에서 믿음생활을 잘 하리라 다짐하였지만 저에게는 끊임없는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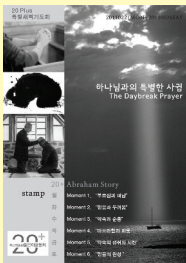
그러던 중 정신여고에서 열린 바자회를 통해 주님의교회를 알게 되었고 마음의 답답함을 갖고 새벽기도에 참석하며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일예배 말씀가운데 세상이 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들으면서 아이들과 특히 믿지 않는 제 남편이 보는 난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모습은 적극적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등록과 함께 새가족양육모임에서는 정말로 신기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치료과정을 다 지켜본 주치의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양육모임 시간 그 교수님께서 제 둘째아이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당황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아이의 이야기를 모임 중에서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온 시절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이런 힘든 일들을 겪었던 이면에는 저의 남편과 저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주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 기대 합니다 주님을 더 잘 알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해 하며 찬양하며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두 아이들이 요즘 발표회 준비를 한다며 예배 끝나고도 남아서 연습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편도 함께할 그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이은민 성도)

교회소식 이모저모

- 20 Plus 특별새벽기도회



20Plus 청년들은 평상시 새벽마다 소수의 청년들이 모여 중보기도모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는 50여명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름하여 '20+아브라함' 이라는 주제로 특별새벽기도회의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 20Plus 청년부는 매일 새벽중보기도모임과 올해 여섯차례에 걸친 특별새벽기도회를 계획, 청년의 때에 기도하는 습관을 훈련하여, 주님의 교회의 '기도하는 다음세대' 로 준비되고자 합니다.

- 독거노인 영양죽 공급업체 / 배달사역팀 모집 (문의: 김동익 안수집사 010-5382-4769)

*독거노인을 위한 '영양죽 공급업체' 를 모집합니다. (3월 5일까지)

자격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요식업 경험자

*독거노인을 위한 배달사역팀을 모집합니다.

거여, 마천 1,2동 지역 (2인 1조 차량소유자) / 매주 월, 목 중 1회 (10:30 ~ 12:30)

- 아기정원 7기 모집

대 상 : 20~40개월 유아와 어머니 / 교육기간 : 3월17일~6월11일 (매주 목요일 12주간) 오전10:00~12:00

원서교부 : 2월20~3월6일 3주간 1층 사무실 (주일은 1층 안내데스크)

원서접수 : 3월6일 9시부터~3월13일 1층 사무실 (선착순 30명)

교회홈페이지에서 입학안내문과 입학원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오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_ 요일 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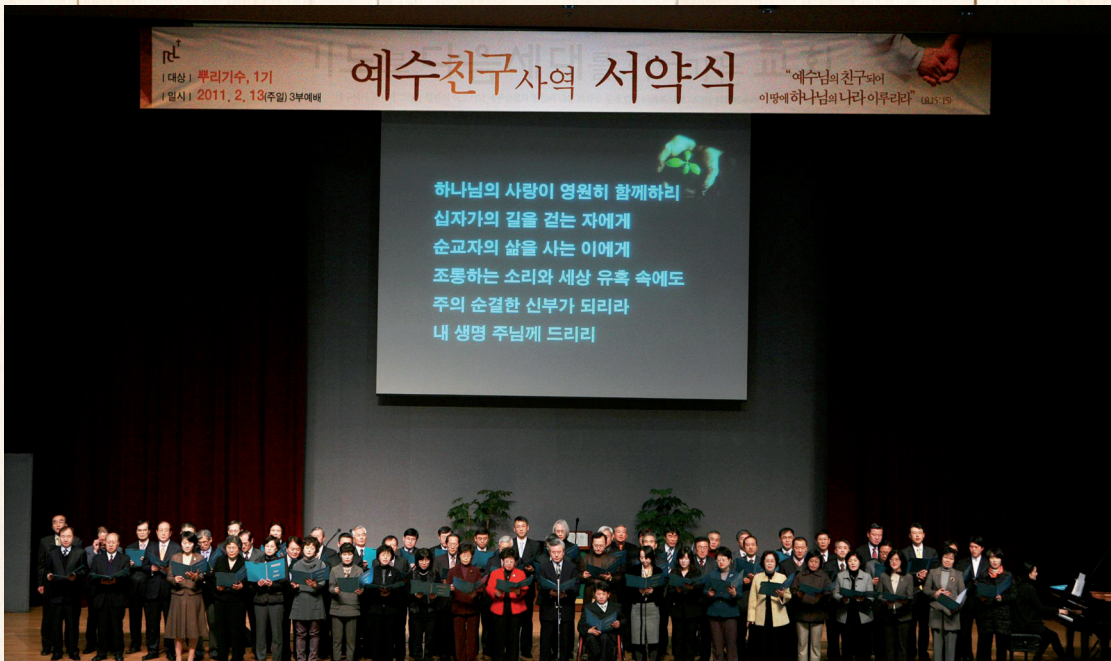
통 권 제 279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1년 2월 27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한걸음, 한걸음 예수님과 함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15:15)

2011년 2월 13일에 67명의 예수친구사역 훈련생들이 서약식을 가지고 순항 중인 예수친구사역에 대한 소개와 진행과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친구사역은 박원호 담임목사님의 교수로서의 가르침의 자리와 목회자로서 목회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준비되어온 사역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시작하도록 하신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담임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제자훈련에 대한 연구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2010년 9월에 장로님들의 추천을 받아 '예수친구사역 뿌리기수'를 구성하고 1단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역이 앞으로 주님의교회 핵심사역이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역이기에, 지난 해 시무장로님 전원으로 구성된 '예수친구사역 CORE 그룹 훈련과정'에서 예수친구사역의 핵심가치와 방향성에 대하여 한 학기동안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지난해 12월 예수친구사역 '1기'를 모집하고 61명의 훈련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예수친구사역 '1기'에는 전체 시무장로님들과 몇 분의 은퇴장로님들을 포함하여 30대 이상의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23일 예수친구사역 훈련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2월 13일 주일 3부 예배시에 뿌리기수 6명, 1기 61명 총 67명의 예수친구사역 훈련생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친구사역의 3년이라는 훈련기간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결코 길게만 느껴지는 기간이 아닙니다. 첫 해는 스스로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냅니다. 자기점검표를 작성하고, 필독서를 읽고, 성경을 통독하며, 필요한 양육클래스 강좌를 들으며, 한 달에 한 번 그룹별 전체 모임을 통해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해는 매주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으로 나누며 기도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는 훈련들을 합니다. 마지막 셋째 해는 섬김이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해로, 직접 소그룹을 담당하되 함께 하는 팀 사역으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한 해 한 해 단계별로 특색이 있는 훈련을 하다보면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3년과 같이 참된

제자로 세워지고 변화를 경험하는 3년간의 예수친구사역 훈련기간을 기대해봅니다.

예수친구사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친구사역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사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중심을 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 뿐만 아니라, 사회를 품고 세계를 품을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친구사역은 성경공부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역이지만 훈련과 나눔의 방식은 성경공부 방식이 아닌, 설교를 통한 삶의 나눔 방식(Shared Praxis)입니다. 또한 개인 일대일 훈련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훈련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친구사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존재를 회복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친구사역은 무엇보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훈련을 결단하는 본인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를 후원하는 기도후원자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친구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친구사역은 평생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훈련기간 동안 들어야 하는 양육클래스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미리 수강하셔서 들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12단계 성경공부를 꾸준히 계속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는 성경적 이해를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14:17)

온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주님의 제자로, 예수그리스도의 친구로 부르십니다. (예수친구사역 조광민 목사)

2011 겨자씨인도자 수련회

“나의 겨자씨,
하나님나라
되게 하소서!”

일시: 2011.3.4(금)-5(토) / 1박 2일

장소: 광림 비전랜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296-1 / T.031.592.1163)

강사: 김영길 총장 (한동대) 주관: 주님의교회



주간 목회력

<담임목사 동정>

3.2(수) ~ 3.4(금) 영남신학대학교 사경회

<새가족환영회>

2.27(주일) 오후 3:30 / 지하식당

<2011 봄학기 양육클래스>

3.8(화) 부터 개강 (세부사항 안내문 참조)

<성인 입교세례식 교육>

3.20(주일) ~ 5주간(매주), 신청: 1층 로비

세례예식: 4.24(부활주일)

함글함글의 기사를 보내주세요.

함글함글에 글을 신기 원하시는 분은 기사를 작성하셔서 hamletter@hanmail.net 로 보내주시면 편집회의에서 검토 후 실어 드립니다.

문의: 최용석 목사 T.010.4234.4489

교육목회원 탐방 / 세초 날이 밝으니 2면

제작수련회특강을 듣고, / 반기운 학교나들이 3면

어와나를 마치고 / 새가족 간증 / 교회소식 4면

*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교육목회원 <하임, 아기정원> _이혜경 목사

하임(아기부)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
품 하나님의 최
고의 작품”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
고의 작품, 걸작품들의
찬양소리가 울려퍼지
는 주일아침 지하1층 아



기부실, 15개월 미만의 아기를 안고 주일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귀하고 거
룩한 부모님들의 발걸음소리가 가득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
들을 품에 안고 거룩한 부모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 자리하는 아기부는 찬양으로 하나님
을 만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자기며 말씀속에서 하나님의 눈으
로 자신과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할 사명이 숨쉬고 있는 믿음의 공간입니다.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하임”이라는 히브리어대로 아기부는 부모님과
아기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아름답고 힘있게 자라나길 소
망하며 삶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을 나누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아름답고 힘있게 아기들의 자라나길 기도드리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믿
음의 부모님들이 자녀양육의 거룩한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도록 버팀목이 되고자 힘
쓰고 애쓰는 섬김의 손길들도 풍성하게 자리하는 아기부에는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아기
들을 돌보아주시며 사랑과 신뢰할 만한 환경이 되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며 그 품안에
서 낮가림이 심한 아이들도 3주만에 적응하고 있어서 신나게 찬양을 온몸으로 드리는 복음
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신뢰가 잘 이루어지는 애착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을 배려하
여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의 장도 열어보이는 아기부, 행복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하임은
주님의교회 교육목회원의 디딤돌역할도 함께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나라의 기쁨
가득한 알곡공동체의 모습을 품으려고 귀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기정원

“쟁쟁 쟁쟁 해가 떴는데 어디가세요 나는 아기정원입니다”

추운겨울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즈음
아기정원 선생님들이 분주해집니다. 아기정원에 찾아오는 아기들과 부모님들을
맞이할 준비하며 3월 17일부터 12주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엄마 손잡고 찾아오는
20-40개월의 아이들의 함성소리가 울려퍼지는 햇살가득한 주님의교회 트랙을 기
대합니다.

정원사이신 하나님의 사랑, 선생님과 엄마의 따듯
한 돌봄이 숨쉬는 신앙의 든든한 터전, 아기정원 유아들이 첫 사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유아들의 마음의 터, 엄마, 엄마가 먼저 행복해야 자녀



들도 행복할 수 있기에
엄마의 마음을 신앙의 눈
으로 행복하게 가꿀 수
있도록 도우며, 엄마배움
터를 통하여 지혜로운 부
모의 역할을 배워가며 아
빠와 함께 하는 놀이잔치
로 이루어지는 수료식은
가정의 소중함을 듬뿍 머
금할 수 있는 장이랍니
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왕성하게 발달하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아기정원에서 아직 독립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에는 조금 어설프지만 엄마와 함께 함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친구와
의 관계도 조금씩 배워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준비됩니다. 말씀과 더불어
다중지능을 기초로 하는 재미있는 배움터를 통해 “믿음쑥쑥! 사랑풍풍! 기쁨
광창!”을 온몸을 체험하며 하나님나라의 아름답고 씩씩한 일꾼으로 자라나는 소
리가 힘차게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세초 날이 밝으니 <1남선교회> _1남선교회장 한형석 안수집사

신묘년 새 날이 밝으니 새 소망을 품고 산지를 향해 달
립시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
보아 주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
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
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중
“땅”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 모두의 땅입니다. 팔레스
타인 산지내의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먹고 사는 땅이라, 그저 하나님
만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입
니다. 그러니 내 힘만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경우는
해당 될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있는
땅입니다. 혹시 앞에 험한 길이 놓였는지는 몰라도, 그
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려운 일로부터 완전

면제될 수 있겠습니까?
그 땅에 14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
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말씀과 같이 철 따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남선교회”는 주님의교회에 등록된 만60
세이상 교우들의 모임입니다 (현재 406명). 세상사로
볼 때, 말하기도 그렇고 듣기도 그렇지만 모두 조금 전
성기를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몇 번씩이나 나오니
다. 가나안 땅은 겨울이 아주 춥지 않고 우기가 두 차
레 있어서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이른 비를 맞지 못했
더라도 - 우리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서 그렇지 우리도
이른 비 맞았어요. - 늦은 비가 한 차례 오게 되어 있으
니까 우리 한 번 더 기대하십시오. 올해 2011년에 담

당을 맡으신 이강찬 목사님, 흔쾌히 앞서서 선교회는
영을 맡아주신 임근원 총무집사님, 해박하신 문화부장
장순길 집사님 등, 임원분들께 늘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도 드립니다. 우리는 패한 것이 아니니까 패자부활
전이라고 할 것도 아니지만, “The best is yet to
come”, 성서의 말씀과 같이 늦은 비가 한차례 더 있으
니까 “최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의 기대와 소망은 저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잡힌바 되어 기쁨에서 기도하니 소망
이 견고하며 고난에서 기도하니 새 소망을 얻으리라.
인생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소망은 끝나지 않았나니
주는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소망이로다.”



늘푸른대학

제3기 모집안내

*문의 : 정원영 안수집사 010-5339-6464
정의명 집사 011-384-0305

입학안내

대 상 : 만 65세 이상 주님의교회 교인 및 지역주민 (제2기 수료자 재등록 환영)
등 록 : 2011. 2.27(주일), 3.6(주일) - 선착순 150명
등록금 : 3만원 (1년 30주간) * 입학원서 제출 시, 특별활동반 2개를 지망해 주세요

학사일정

기간 : 3.8(화)~12.6(화) 10:00-14:00 (30 주간) 개강 : 2011. 3. 8 (화) 오전 10:00
1학기 : 3.8 ~ 7.5 (화) - (17 주간) 2학기 : 9.6 ~ 12.6 (화) - (13 주간)

특별활동반 (11개 반) 성경읽기반 | 찬양대반 | 붓글씨반 | 탁구반 | 생활체조반 | 스포츠댄스반 | 노래교실반 | 종이접기반 | 한국무용반 | 바둑반 | 교사성어반

제직수련회 특강을 듣고 _박규택 안수집사



지난1월30일 제직수련회에서 정성진목사님(거룩한빛광성교회)의 "새 시대의 새 일꾼"이라는 강의를 듣고 공감하는바가 많았다. 앞으로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제시한 것 같다. 물론 그중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관념적 신앙에서 탈피하고 구체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변화에 더딘 교회의 속성상 그것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했다. 이 시대에 변화가 더딘 대표적인 집단으로 공무원집단, 학교교사집단, 그리고 교회집단을 꼽았다. 굳이 교회를 기업집단에 비교하자면 기업은 시속100km이상인데 교회는 겨우 시속10km의 속도로 변화가 더디다고 했다. 이는 변화를 달가워 하지 않는 교회의 속성일수도 있고 현실에 안주하고자하는 교회자체의 게으름 때문이 아닌가도 싶다. 고인물에서는 물고기들이 잘 자랄 수 없다. 변

화의 힘찬 물결 속에서 자란 물고기들만이 건강하게 살아 남을 수 있다. 교회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설정을 하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게조차 교회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오늘날과 같은 다변화된 사회에서 '예수천당' 만으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처방을 제시했다.

1. 전문성을 키우자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을 각자의 자기 은사대로 개발하여 세상속으로 나아가 효과적으로 활용하자

2. 수용성을 키우자

강한 종자끼리 이종교배를 해야 좋은 종자가 나오듯이 남의 것에서도 좋은 점은 받아들이자

3. 정보화시대의 넷 워크를 극대화하자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다 교회도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과 함께 건강하게 커야 한다

4. 다양성을 키우자

좋은 것은 타 교파나 타 종교에서도 받아들이자

5.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자

교회의 일원으로써 확고한 자기 신앙을 지키고 교회나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되자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받아들일때 교회가 진취적으로 커 나갈 것이고 이를 위해 교회는 새 시대에 맞는 새 일꾼들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건강한 교회끼리 서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 교회는 말씀이나 경건함의 중요성은 물론이거니와 우선은 편안하고 또한 재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목사님의 활기차고 재미있는 강의가 많은 점을 되짚어 보게 해주었다. 귀만 열린 교회가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이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가운학교나들이 _이은주 기자

반가운 학교 친구들이 반가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반갑다'라는 말에는 좋은 일을 맞거나,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그리운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소식을 들어 마음이 기쁘고 '호뭇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반가운 학교'는 '반가운'이 주는 의미 그대로 좋은 일, 바라던 일, 보고 싶은 친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하루짜리 교육 여행을 갑니다. 지난 겨울방학 우리 친구들이 강원도 영월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역시 '반가운' 감사가 넘치는 여행이었습니다.

이른아침 친구들 20명과 선생님들 5명 25명이 교회를 출발했습니다. 살짝 늦은 친구가 있긴 했지만 해가 뜨기 전 서울을 벗어나 달리고 있었습니다. 설친 잠을 보충하고 깨보니 이미 영월이었습니다.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에서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처음 우릴 맞이한 것은 봄별 같은 파스함이었습니다. 전날까지도 추위가 기승을 부려 강원도로의 여행에 긴장을 했었는데 겨울 속에 봄이라면 과장일까 날씨부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작은 섬처럼 보였는데 뽕뽕 언 강을 미끄러 타듯 건너가니 수백년 된 거숭들이 송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람한 점 없고 소란스런 관광객도 없고 거기에 소나무 사이 눈부신 햇살까지 500여 년 전의 단종의 슬픈 역사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과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주님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어서 영월 10경으로 꼽히는 선돌과 한반도 지형을 닮은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연이 만들어 낸 위대한 작품들, 인간이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작품들 앞에 다시 감사가 흘러 나왔습니다. 하늘이 준 선물들이었습

니다. 여행지를 옮겨 다니며 서먹하던 친구들은 바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미끄러운 길 손 잡아주고 함께 걸으며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여행이란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 손끝으로 마음으로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행을 통해 더 많이 느끼고 배우며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길 기도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탄광 문화촌을 둘러 본 후 별마로 천문대로 향했습니다. "천문대는 해가 지기 전에 별 볼일 없다"는 문화해설사의 말을 들으며 천문대 가는 길에 들어서니 봉래산 800여 미터에 위치한 천문대는 아직 까마득한데 길이 미끄러워 버스가 올라가지 못한 다며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어찌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천문대 직원들의 차들이 등장했습니다. 체인을 감은 승용차, 승합차 등 천문대 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우리 친구들을 직접 데리러 내려 온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왔다면 분명 돌아갔을 텐데... 이미 계획하신 것처럼 일을 풀어주시고 여행의 일정 세세한 부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느끼며 즐겁게 천문대로 향했습니다. 별자리 공부를 하고 천문대 옥상에 오르니 천천히 지붕이 열렸습니다. 물론 별은 볼 수 없었지만 눈부시게 파란 하늘과 흰 모자를 쓴 산들 사이 오롯이 들어 있는 영월시내가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강과 서강을 양 옆에 끼고 그림처럼 들어앉은 영월은 강원도 지도 안에 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 반가운 친구들에게는 반가운 친구처럼 친근한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천체 망원경을 통해 태양을 관측하고 별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남겨둔 채 산을 내려 왔



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종의 능인 장릉을 돌아보고 곧드레 밥으로 저녁을 맛있게 먹은 후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함께 여행했던 모두는 이미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도 학교도 모두 다르지만 "저 하늘 좀 봐", "저 강과 산 정말 멋지지 않니?" 하며 마음 나누며 여행하는 사이 반가운 친구사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반가운 친구는 여행 시작부터 함께 하신 주님이었습니다.

학교나 책을 통해 공부한 것 보다 더 많이 배우고 마음으로 느낀 귀하고 반가운 여행, 저희 잘 다녀왔습니다.

참, 모르는 분들을 위해.... 반가운 학교는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방과 후 학교입니다.

입학 자격 없고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기본 학과 공부 이외에 독서논술, 음악, 미술, 피아노, 상담 등 다양한 수업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실 분도 연락 주십시오.

(문의 : 손천숙권사 010-7131-6804)